

2008 새해설계 ⑧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지부장 전석주

각 읍면동 지도위원회 활성화 위해 예산 지원 필요

운영위원회 새롭게 조직하여 지부 활성화 대책 마련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흥보 및 항구적 발전과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단체와의 교류 및 유대강화를 위해 1954년 5월 15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가 창립됐다.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지부장 전석주)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활동과 튼튼한 안보태세에 기초한 평화통일 운동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건전한 민주 공동체 건설을 위한 봉사활동, 어머니 후손이 봉사단 합성(여성회), 지구촌 재난 구조단 활동(청년회)을 하고 있다.

현재 1천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포천시지부의 주요활동내역으로는 어머니 후손이 봉사단 활동이 주2회 실시되고 있다. 또한 한마을 체육대회, 자유수호옹변대회, 안보현장 견학을 년 1회 실시하고 고교생 대상 안보강연회는 년 4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성폭행 추방 캠페인 년 2회,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캠페인 년 2회, 광고물 제거 및 거리질서 캠페인을 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석주(55·사진)



지부장은 "포천시지부는 대체적으로 각종 회원이 확보되어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동 지도위원회의 경우 활동비가 지원이 안돼 소규모 자연정화활동 사업 외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읍면동 지도위원장을 독려하여 연맹 본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원확대와 지도위원별 운영위원을 조직하여 지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을 새롭게 조직하여 지구촌 재난 구조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 지부장은 그동안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전에 우수선수도 발굴하고 연습도 충분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지부장은 회원들에게 조직의 활동에 잘 따라주기를 바라며 체육대회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가한 체육대회 대부분의 종목에서 기권을 하고 돌아왔는데 올해는 꼭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천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개월에 100만원은 너무 적은 편이라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이주석 ▶고문 이기양 ▶고문 이홍우 ▶지부장 전석주 ▶부지부장 김창환 ▶부지부장 김태현 ▶사무국장 이성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울러 각 읍면동 지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동 지도위원회의 경우 활동비가 지원이 안돼 소규모 자연정화활동 사업 외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읍면동 지도위원장을 독려하여 연맹 본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원확대와 지도위원별 운영위원을 조직하여 지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지부장은 청년회 30여

목회단상

작은 봉사, 큰 기쁨

미국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는 어느 교포의 이야기이다. 어느날 남루한 옷차림을 한 어떤 사람이 가게로 들어왔다. 그는 동전을 바꾸어서 많은 빨래를 했다. 그런데 뭐가 급한지 젖은 빨래를 말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었다. 주인은 그에게 비난을 몇 장 주어서 그 안에 넣어 가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다음에 주인은 차라리 빨래를 다 말려서 보낼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 후회했다.

며칠 뒤 바로 그 사람이 지친 몸으로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주인은 얼른 뛰어나가 그에게 인사하면서, 점심식사는 했는지 물어 보았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에게 5달러를 주면서 간단히 요거나 하라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 날 저녁, 그 남루한 차림의 사람은 또 많은 빨래를 가지고 세탁소에 왔다. 그런데 또 빨기만 하고 젖은 빨래를 그대로 들고 가려고 행기는 것이었다. 주인은 얼른 그 빨래들을 드라이어에 집어넣어 다 말려서 보냈다. 그러자 마음에 깊은 평안이 왔다. 이는 진실 된 기쁨이었으며, 작은 봉사를 통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 하루

의 일과를 마친 뒤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작은 봉사를 했는데 이처럼 큰 것으로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진심으로 우리나라는 행위는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된다. 감사할수록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신다. 사도행전20장35절 "주에수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고

문의) 031-532-2489



김창성 내촌교회 목사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③③

통일 후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



서희석 대성직677호동 대표이사

첫째, 상당 부분의 토지는 공적으로 사유화를 실시하게 될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 재건과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유화가 필수적이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 임대제를 실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유화 조치는 북한 주민의 사적 재산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결정하고, 경제 재건을 위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 수요를 충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하되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유

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유화는 장기간에 걸쳐 분야별로 선별적으로 시행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거시적 산업 정책에 따라야 한다.

사유화 대상 결정시 필요하다면, 남한에서 1910년대에 일제에 의해 작성된 지적공부의 재조사 사업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유화 시행 전에 토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사전 정비하고 토지종합정보망 등을 구축한 후 사유화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사유화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원활한 토지 관련 행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 등의 연구와 시행을 전담할 전담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이때 전담기구의 주요 시행기구로 남한의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도'와 자매결연할 수 있는 제도의 현실이 가능하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역의 공공용지의 확보와 효과적 토지 이용 및 토지 투기 방지 대책으로서 북한 지역의 토지를 상당량 국·공유화시킴으로써 토지를 이용권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여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토지 소유의 편중을 막아야 한다.

한국어 · 한국문화교육 개강식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KBS한국어상담소 공동주최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소장 신상복)는 KBS한국어상담소와 공동으로 4월15일 오전10시30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1-5번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한 주부들과 KBS한국어상담소 박영주 팀장, 오태훈이나문서와 신상복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KBS한국어상담소와 공동으로 4월15일 오전10시30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1-5번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신상복 소장은 "한국에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한국어를 잘 구사해야 할 것"이라며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잘 이겨내서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KBS 한국어상담소 박영주 팀장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지만 편안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어를 잘 말하여 의사소통 하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태훈이나문서는 "우리말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각자 고향의 문화와 우리문화가 융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힘들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어·한국문화교육은 1차로 4월부터 8월, 2차는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한국어 기초, 실용 회화, 생활표현,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이며 교육 기간동안 차량이 운행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한국방송공사 KBS와 공동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결혼 이민 여성분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요리,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국제학교를 오는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 집 이주민지원센터 이전개소식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 집 이주민지원센터가 포천시 신음동 160-7번지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4월13일 오후3시에 가졌다.

이주민 지원센터 소장 이종민 신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 오태훈 포천나눔의 집 원장사제는 "2008년, 우리는 새로운 꿈에 설 레입니다.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결혼 이민여성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이며 교육 기간동안 차량이 운행된다.

간을 마련하고, 이주여성 사랑방, 다문화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이주민지원센터가 새로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공동체의 축하 노래로 시작된 이날 개소식에서 김근상 서울교구 피선주교는 "예수님이 2000년 전 활동했던 무대도 다문화 지역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공동체가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미환 포천시 가족여성과정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40~50년 전 타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문을 여는 이 공간이 여러분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대한성공회 의료선교회가 지난 6년 동안 매월 한번도 빠짐없이 이곳 이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해 온 사실에 감사하는 감사패 전달식도 가졌다.

포천나눔의 집 이주민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인권, 임금체불,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 집 이주민지원센터가 포천시 신음동 160-7번지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4월13일 오후3시에 가졌다.

생활상담을 하고 있으며 교육, 의료,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각 국가별 공동체 조직 활성화를 도와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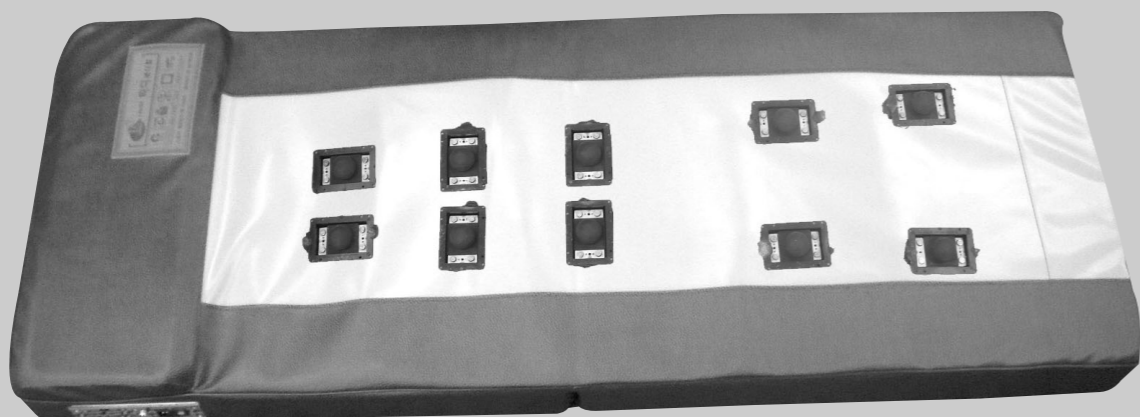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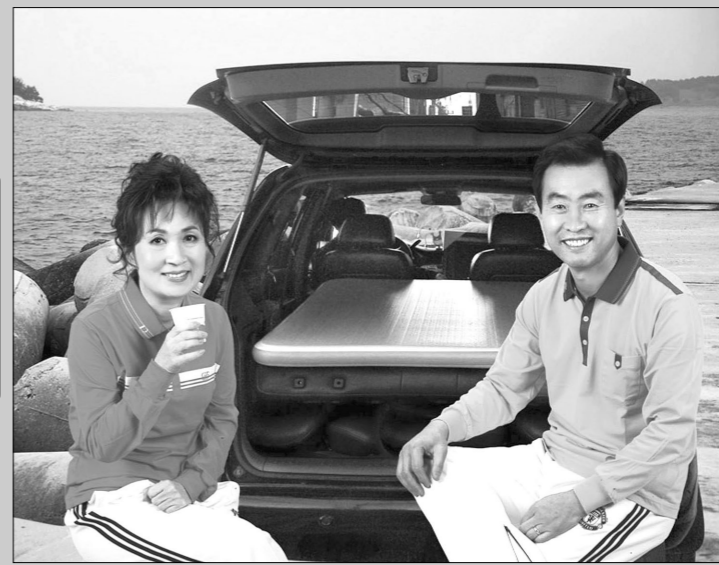
솔레노이드

온열 · 음전위 안마 리듬 마사지

오늘 하루의 피로를 전문안마사 같은 안마매트 위에서 풀어보세요.



사옥전경



아이에서!



물놀이용으로!